



불교평화를 막기 위해 지난 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결성된 대구불교총연합회의 창립법회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종교간 평화·지역 발전 화두로...”

1일,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법회 봉행
 “위협받는 불교와 역사·문화 수호” 선언

개신교의 불교편취를 막고 대구·경북지역 불교인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규모 실행단체가 창립법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비롯해 천태종, 태고종, 진각종 등 대구·경북 지역 12개 종단 사찰과 실행단체, 불자들이 참여한 대구불교총연합회(이하 대불총)는 지난 1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대불총은 이날 창립선언문을 통해 “대구·경북의 불교도가 단결하여 진리수호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대구불교총연합회 창립을 선언한다”면서 “연합회 불교도들은 평화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며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념법회에 앞서 열린 창립 총회에서 초대회장에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 상임부회장에 태종 대성사 도산스님과 진각종 대구교구청장

해명정사, 사무처장에 동화사 사회국장 정필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대불총 회장 성문스님은 취임사에서 “개신교의 억지주장과 선동이 지방 행정을 압박하고 민족문화 전체를 부정하며 전쟁을 선포하는 기막힌 현실을 대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경북의 불자들의 총체적인 에너지와 힘을 모아 위협받는 불교를 수호하고 소중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살리기 위해 대불총이 출범했다”고 창립배경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제8교구본사 직지사 주지 성운스님, 제14교구본사 은해사 주지 돈관스님, 제14교구본사 범어사 주지 정영스님을 비롯해 김법일 대구시장, 도이한 대구시의회의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다종교 사회에서 그 동안 종교분쟁이 없었던 것은 타종교의 비

상식적인 행동에 불교계가 인내하고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했기에 가능했다”면서 “대불총의 창립에는 현 대구시장의 책임도 있는 만큼 향후 광역 기초단체장 공천에 있어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맞대응하는 순간 종교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중요범죄법’과 같은 법적제도 마련이 종교상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법일 대구시장은 축사에서 “2011년은 초조대장경 간행 1000년을 맞는 중요한 해인 만큼 그 동안 불교계와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시 차원에서 의욕이 앞서 지역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불교계와 머리를 맞대 팔공산 위상에 걸맞은 역사문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불총은 이날 발표한 ‘대구불교총연합회 평화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개신교 일부 성직자들의 이웃종교에 대한 폭력적인 언행과 종교전쟁 도발에 대해 준엄하게 규탄한다”면서 “공직자들의 종교편향 없는 엄정한 공무집행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관련 “연평도 도발 대북규탄 결의문”을 채택해 발표했다.

“지역불심 결집”
 초대회장 성문스님

앞으로 종교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대구불교총연합회(이하 대불총) 초대회장으로 추대된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불총은 조계종을 비롯해 대구·경북지역 12개 종단과 28개 실행단체가 동참한 범불교단체로 이번 결집에는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단체의 악의적인 불교편취 행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성문스님은 “개신교의 억지주장이 지방행정을 압박하고 민족문화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불총은 앞으로 종교편향, 불교편취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불교교육, 장학사업, 사회복지사업, 불교문화컨텐츠 개발, 국제불교교류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한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전북 도로표지판에 사찰명 삭제 ‘파문’	6면
특별대담 ‘연평도 사태 어떻게 해결할까?’	10면

대학생 법회지원 ‘전법단’ 출범

포교원, 15명에 위촉장... 단장에 현종스님

대학불교학생회 법회를 지원해 청년학생 활성화에 이를 조계종 대학불교학생회 지원단이 탄생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스님)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대학생전법단 위촉장 수여식을 갖고, 15명의 스님을 전법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스님은 단장 현종스님(서울 삼성암 주지)을 비롯해 포교원 포교국장 남진스님, 원종스님(덕성여대), 여행스님(성신여대), 답소스님(중앙대 안성캠퍼스), 일진스님(미정), 상준스님(홍익대) 등이다. 동국대학교 석립회 대학생지도법사단 스님들도 함께 활동할 계획이다.

전법단에 위촉된 스님들은 각 대학 불교학생회 지도법사를 맡아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대학생법회를 지원하게 된다.

위촉식에서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조계종은 현재 계층별 전법단을 구성에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며 “오늘 전법단으로 위촉된 스님들은 대학생 불자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지도연단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아직까지 지도법사가 없는 학생법회를 잘 찾아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늦었지만 대학생전법단을 구성해 활동을 지원해준 포교원에 감사드립니다”는 단장 현종스님은 “1970

년대 대학생지도법사를 하며 활기찬 대학생 불자들의 모습을 지켜왔는데 최근 많이 침체돼 아쉽다”며 “오늘 전법단 탄생을 계기로 힘 있고 조직화된 포교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촉식 후 포교원장 혜총스님은 전법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포교원은 올해 병원, 군, 경찰 등 계층별 전법단과 광주·전남, 성남 등 지역별 전법단을 발표했다. 내년에는 교정교과, 장애인, 국제, 인천, 대구·경북 전법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전국불교사회복지인 ‘한 자리’ 복지재단, 2010 자비나눔축제 개최

전국 불교사회복지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2010 한국불교 자비나눔축제’가 지난 4일 서울 AW컨벤션 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관련 기사 13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올해로 12회를 맞은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포교원장 혜총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정영스님, 진

수희 보건복지부장관, 이재오 특임장관을 비롯해 전국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 700여 명이 참석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복지와 봉사를 실천하는 여러분은 대승보살의 현신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최일선에서 실천하고 있다”면서 “불교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인대표와 시설장, 자원봉사자들이 보살정신으로 원력을 세우 역량을 발휘하게 되는 날 불교정도를 화려시킬 것”이라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조계종 문화부 사찰음식연구단 스님들이 직접 나서 한식문화의 맥을 잇는 담백하고 소박한 사찰음식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연평도 사건 이후 높아진 남북관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나누는 설치물도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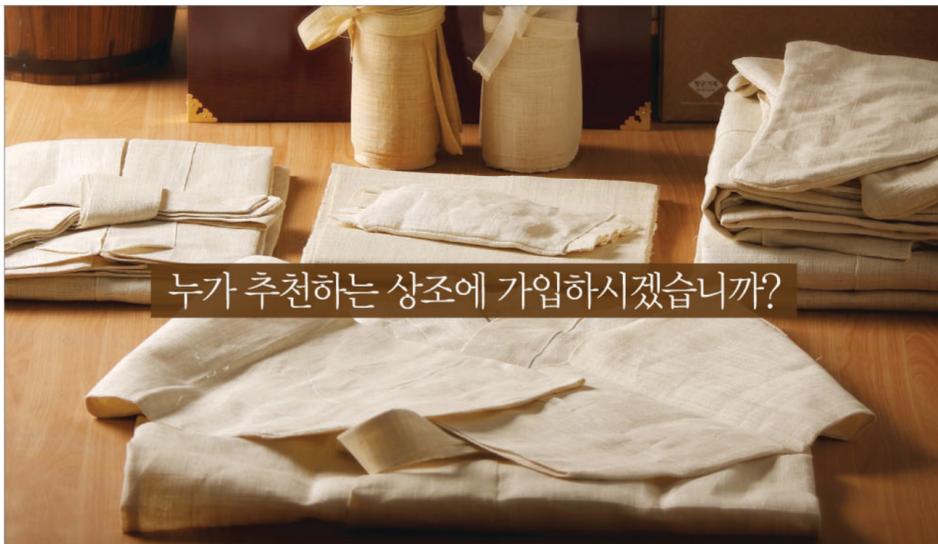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정만스님)은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높이는 데 불교문화가 기여하고 있음을 알리고, 입법기관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이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유를 직접 체험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행사를 준비했다”며 “1700년 역사와 문화, 전통이 살아 숨쉬는 사찰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현경 기자 eonabo@bulgyo.com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불교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민간복지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정부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면서 “앞으로 전국에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행사는 복지재단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불교사회복지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불교사회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특별세미나가 가열의미를 더했다. 또 자비나눔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총무원장장, 보건복지부장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장 등 각 영역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1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대오스님은 “이번 나눔축제는 불교사회복지인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로 어느덧 12회를 맞았다”면서 “그동안의 성장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철 기자 hjc@bulgyo.com



대한불교조계종이 추천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무료상담 080-888-5000

850만 역전의 용사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100% 출자 상조	경제적인 상조 서비스도 용품도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불자님을 위한 상조- 재향군인회 상조회
---	---------------------------------------	---------------------------------------	--------------------------------------	---------------------------------

중요정보 고사사항 1.종도회유원금 및 환급기준 2.표준의상 제15호 제규정에 의한 나.환급금액은 사망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환급 다.만기3개월 후 해지시납입금액의100% 환급 2.소비자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한 3.주요제공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수익 환급 제도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대대 100%중국산 • 원단의 제조방법 및 제조사:수제직(국내산)나.관의 재질: 두께 및 원산지 • 매장사:오동나무(중국산) 3~4.5cm • 화장시:오동나무(중국산) 1.8~3cm 다.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가리 • 차량의 종류 - 은규리무한-원천캐딜락(2006년 이상) - 정익버스-현대,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상봉별 기본 무료제공(이외 가리 추가시)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차량 및 비용은 제공지역 및 행사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로.도유미 추가시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인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2010년 3월 10일 기준) 가.상조회원사 19,965,615만원 총고액 환급액 15,400,603만원(공민보건의료의 회계제도를 받았음-효립회계법)가 5.고액납입금의 관리방법 고액납입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협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